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9년 2월 17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행26장 8절-12절

설교제목 : “나사렛 예수의를 대적하여”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기에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를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나사렛 예수의를 대적하였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행26:4-5**의 고백에 따르면,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일찍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대학자 가말리엘 문하에서 엄격한 율법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을 철저히 공부하고 암송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역시 구약성경에 매우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는 의구심이란, 구약성경에 정통한 바울이 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구약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펼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눅 24:44-45**)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한마디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정통한 바울은 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책이 **옥성호**씨가 지은 **신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옥성호 씨는 그의 책에서 **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구원은 당면한 현실의 위기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가령,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21**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는 말씀에 고개를 가우뚱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메시아의 개념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태복음 1:21**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환난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였다면, 유대인들은 금새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은 유대인들이 전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옥성호 씨는 그의 책에서, 구약성경은 메시아가 오면 다음의 다섯 가지 놀라운 사건이 발생할 것을 약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온 세상으로 흩어진 유대 민족이 다시 조상의 땅 유대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둘째**, 무너진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토라에 대한 순종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지혜가 유대 민족을 통해 온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온 세상에 평화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옥성호 씨에 의하면, 이러한 다섯 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유대민족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자신을 정치적 억압으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란 사실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은 적이 있습니다.(**마11:2-3**)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이 오시면,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의 도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민족을 회복시키는 메시아가 아

나라,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참고 눅 4:16-21)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구조를 가진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약속된 다섯 가지의 약속은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는 약속들입니다. 옥성호 씨와 유대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의 구조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독교가 메시아 예언이라고 주장하는 구약 성경구절들을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도통 납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옥성호 씨의 책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이라고 인용한 구약성경의 구절들이 메시아와 연관된 구절이 아니거나 잘못 인용되어 있다고 비판을 하면서 그 근거들을 여러 가지로 듭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실제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메시아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 삶에 의미가 바로 그 분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변하였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직 예수님이 그의 삶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자시의 인생의 존재 이유와 의미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2)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 구조 즉 이미와 아직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구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